우리 활자문화에 바라는 소망

이선영

연세대 명예교수·국문학

묵은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우리 모두 좋지 못했던 지난날을 말끔히 씻고 밝고 복된 새날을 맞이하게 되기 바란다. 어둡고 더러웠던 것은 밝고 깨끗한 것으로, 억눌리고 공평하지 못했던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단절되고 대립했던 것은 통일되고 화합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사실 새해 새날을 맞아 누구나 이러한 소망을 한번쯤은 떠올린다.

새해의 첫머리를 우리는 '설'이라 한다. 설은 묵은 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날이며 첫머리를 가리킨다. 한해의 처음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설날은 멋진 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들이 어찌 설날만 설은 날이고 그밖의 날은 설지 않은 날이겠는가. 우리는 새롭고 낯선 일들을 해마다 달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딪쳐 껴안고 살아간다. 물론 시간의 주기에 따라 유사한 일들의 되풀이되는 만남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유사한 일들까지도 엄밀히 따져보면 하루도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구상의 다양한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시시각각 홍수로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옛날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사하다거나 낯익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그러한 정보나 지식, 사상이나 사항 등을 전달하는 매체가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는 각종 정보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큰 위력을 자랑한다. 실제로 사고를 확장시키고 심정적인 호소력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영상문화가 신문·잡지·단행본과 같은 활자문화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특성을 지닌 영상문화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따라서 영상문화를 제쳐두고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활자문화가 맡아야 할 몫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현대가 영상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책은 여전히 살아 있고,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떠맡아야 할 소중한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영상문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즉 사물을 분석하고 추상하고 사고를 집중하고 개념을 정착시키는 일은 활자문화가 아니고는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영상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동적이고 일과적이며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퇴폐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활자문화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생각을 널리 퍼뜨리거나 정서적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힘을 갖는 영상문화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이른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적 대응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소망인 질높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전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생각을 집중하여 사물을 제대로 분석하고 추상하는 창조적이고 이성적이되 심정적인 기능을 포괄하는 활자문화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과 진실에 바탕한 문화의 성취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활자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내용과 문제를 비롯하여 문자매체가 자랑하는 위에든 기능에다 심정적 호소력을 갖는 영상성도 적절히 곁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활자문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활자문화, 특히 금속활자의 역사가 서양의 그것에 비해서 200년 넘게 앞섰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세계가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활자본인 고려의 《직지심경(直指心經)》을 지난 연말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 직접 본 감회는 컸다. 활자문화에 대한 과거의 자부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활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출판저널

1996년 1월5일 제183호
격주간·매월 5,20일 발행

THE KOREA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신년 특집 2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선 새해 전망과 설계
출판인 31인에게 들어보는 96년의 출판계

10 "자기색깔 뚜렷한 출판사가 좋다"
서점인 23인에게 듣는 현장의 목소리

16 올해에 주목할 만한 출판가 사람들
'새로운 길'로 뛰어가는 도서출판 새길
출판귀재, 김영사의 김영범 기획실장
신명오른 이야기꾼, 소설가 김형경씨

통계 18 대형물 없는 '95베스트셀러의 우울한 잔치
주요 대형서점이 집계한 95년 통계

출판계 소식 19 독서새물결추진위 '독서대상' 시상·외

기획 특집/'문학의 해' 20 출발부터 불협화음 심한 '문학의 해'

21 '문학의 해'에 소설의 꽃 활짝

신간읽기 22 디지털시대를 읽는다—백욱인
네그로폰테 《디지털이다》

리뷰 23 새로운 책의 발견의 시대를 위하여—정병규

서평 26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임재해
아도르노 《한줌의 도덕》—김유동
27 드라이젝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정재춘
데이비스 《슈퍼스트링》—신상진
28 하디 《어느 수학자의 변명》—박세희
송면 《프랑수아 비용》—유석호
29 김영태 《멀리서 노래하듯》—김경애

이 책 그 사람 30 《한국의 시장》 펴낸 전성현씨
《미술과 도시》 펴낸 최태만씨
31 《창녀론》 펴낸 김완섭씨
《세상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펴낸 이정석씨

34 신간안내/42 새로나온 책

표지사진/구본창

謹賀新年

애독자와 출판인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년 새해
(재) 한국출판금고 임직원 일동